

고창 벚꽃축제 인기 만발... 얼굴마다 웃음꽃

석정온천지구 일원 첫번째 개최... 개막식 공연에만 1만명 몰려 콘서트·화합한마당 등 진행... 식당가 붐비, 재료 조기 소진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고창 벚꽃축제가 대박을 터트렸다.

고창 벚꽃축제는 '사랑인가. 봄'을 주제로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고창 석정온천지구(고창읍 석정리 727번지) 일원에서 진행됐다.

석정온천 벚꽃은 지난 2010년 석정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온천 주변 1km 구간을 벚꽃으로 식재한 곳이다.

또 고창읍-석정 삼거리(솔재 삼거리) 2km 구간은 지난 1995년 4차선 확장 공사 당시 벚꽃과 철쭉을 함께 식재한 곳이다.

이번 축제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행사 첫날인 31일에는 봄처럼 화사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콘서트를 시작으로 이색복합 벚꽃길 걷기와 미디어북 퍼포먼스, 자전거 탐 풍경 공연 등 전야제 공연, 군민화합한마당이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벚꽃 군민화합페스티벌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지며 노래와 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졌으며 저녁 7시에는 주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인기가수 10cm, 김태연, 신유 등 초청 공연이 이어져 관광객과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개막공연에는 1만여명의 관객들이 몰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처럼 노마스크의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마음껏 즐겼다. 또 개막공연을 보지 못한 관광객들은 고창읍-석정 삼거리와 석정온천 주변 벚꽃길을 배경으로 추억을 쌓았다.

벚꽃이 만개한 도로에는 한꺼번에 몰려든 차량으로 인해 도로 곳곳에서 교통 체증도 발생했지만 주최측의 신속한 조치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 했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밤에는 낮과는 달리 화려한 경관조명과 어우러지며 형형색색 변하는 황홀한 벚꽃으로 황홀하고 찬란한 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주변 식당가도 예상치 못한 관광객으로 인해 미리 준비한 식자재가 소진되는 등 모처럼 함박 웃음을 터트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벚꽃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관광객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색다른 콘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제1회 고창 벚꽃축제가 '사랑인가. 봄'을 주제로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고창 석정온천지구 일원에서 개최됐다. 야간 경관조명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석정온천 주변 벚꽃 야경.

않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고창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정책을 발굴해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최대 5년, 5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지급,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

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4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하반기(10-11월) 사업 시행 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다음달 5일까지

정읍시가 구제역 유행 방지와 축산정정 정읍 유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지역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목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가축전염병이다.

접종 대상은 관내 사육 중인 소 8만 마리, 염소 7700마리 마리아미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가 백신을 일괄 구매(100% 보조)해 공수의

를 동일한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50% 보조받아 지역 축협에서 구입 후 자체적으로 접종하면 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치고 1개월 이후부터는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접종·재검사 등 특별 관리하고 정부 지원사업 혜택에서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시는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소·염소에 대해 정기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돼지는 6개월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사육 기간이 짧아 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하고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각(별 제기)·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에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백신접종이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두대상'에 동학혁명유족회 정남기 고문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시상하는 '제16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남기(사진) 상임고문이 선정됐다.

기념사업회는 정남기 상임고문이 30여년간의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연구·문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계승하는데 공헌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8년에 제정됐다.

정남기 상임고문은 고창 출신으로 동학농민혁

명 당시 전봉준의 비서로 참여한 정백현의 손자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인 1994년 3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발족해 상임이사로 실무를 담당했고 10년 동안 유족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선정 인지도 제고·판로개척 지원

남원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에 나선다.

남원시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2023년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돼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남원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과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남원-서울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50+팬슈머 사업을 시행해왔다.

특히 남원-서울 50+팬슈머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투자와 경영 스토리 인터뷰, SNS 확산을 통한 新도농교류, 관계인구 증진으로 '2022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불경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일반 시장 및 공공구매 판로 확대에 나서 ▲국내 박람회 참가비 및 판촉비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추석명절 '공감 마켓'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및 서비스 안내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향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